

초대의 글

전 세계가 점차 지구촌화하면서, 재외동포의 거주양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동포가 있고, 한국으로 역이민 오듯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이주 역사에 따른 유산은 재외동포 사회에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재외동포와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정책 수립에서 재외동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은 정책의 성격과 목표를 달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2013년 재외한인학회의 연례학술회의의 주제는 "상호인식과 정체성: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들"입니다. 2014년은 러시아로 한민족이 이주해간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민족학교와 민족교육의 문제도 우리가 새롭게 검토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환경을 통해, 우리와 재외동포 상호간의 시각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학회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외한인연구에 평생을 바쳐오시고, 재외한인학회를 설립하신 이광규 교수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아직도 놀람이 가지시 않았지만, 교수님의 재외한인연구에 대해 회고해보면서 교수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이번 연례학술대회에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재외한인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의하고, 이 광규 교수님을 추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11월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 회장 이진영

프로그램

| | |
|---------------|----------------------------------------------------------------------------------------------------------------------------------------------------------------------------------------------------------------------------------------------------------------------------------------------------------------------------------------------------------------------------------------------------------------------------------------|
| 13:00 - 13:30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성 동기 (재외한인학회 총무이사) • 개 회 사 이 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 환 영 사 조 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축 사 이 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 사진 촬영 |
| 13:30 - 14:20 | <제1세션> 라운드 테이블 : 이광규 교수와 재외한인학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한 경구 (서울대, 전 재외한인학회 회장) • 약력 보고 이 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구홍 (해외교포연구소), 도 재영 (동북아평화연대) 백 영옥 (명지대), 서 두현 (통일부), 김 봉섭 (재외동포재단) |
| 14:20 - 14:40 | Coffee Break |
| 14:40 - 15:50 | <제2세션> 고려인의 삶과 귀환 : 이주 150주년을 맞이하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임 영상 (한국외대) •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인진, 송 영호, 김 희상 (고려대)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사회정체성과 언어사용실태 ▷ 방 일권 (한국외대) 실현되지 못한 귀환: 1945-50 소련의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 검토 •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 현용 (군사편찬연구소), 조 세영 (동서대학교) |
| 15:50 - 16:00 | <제3세션> 백 영옥 교수님 퇴임 : 감사패 증정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최 진욱 (통일연구원, 북한학회 회장) • 감사패증정 이 애리아 (동경대, 재외한인학회 감사) • 인사 말씀 백 영옥 (명지대, 재외한인학회 고문) |
| 16:00 - 17:10 | <제4세션> Ethnicity and Education of Diaspora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백 영옥 (명지대, 재외한인학회 고문) •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man Kim (Kazakhstan National al-Farabi University) Paradigm of Diaspora Identity and Language ▷ 김 웅기 (홍익대) 험한시위를 통해 보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용 •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준규 (한양대), 임 영언 (전남대) |
| 17:10 - 17:30 | <총회> 2013 재외한인학회 연차 총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이 진영 (인하대, 재외한인학회 회장) • 업무 보고 성 동기 (인하대, 재외한인학회 총무이사) • 재무 보고 최 서리 (IOM 이민정책연구원, 재외한인학회 이사) • 감사 보고 이 애리아 (동경대, 재외한인학회 감사) • 질의 응답 |
| 17:30 - 18:00 | 폐 회 |
| 18:00 - 20:00 | 만찬 |

<제 1 세션> 라운드 테이블: 이광규 교수와 재외한인학회

- 사 회 한 경구 (서울대, 전 재외한인학회 회장)
- 약력보고 이 진영 (재외한인학회장)
- 토 론
 - ▶ 이 구흥 (해외교포연구슈), 도 재영 (동북아평화연대)
 - 백 영옥 (명지대), 서 두현 (통일부), 김 봉섭 (재외동포재단)

<제 2 세션> 고려인의 삶과 귀환 : 이주 150주년을 맞이하며

- 사 회 입 영상 (한국외대)

- 발 표

- ▷ 윤 인진, 송 영호, 김 희상 (고려대)

-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사회정체성과 언어사용실태

- ▷ 방 일권 (한국외대)

- 실현되지 못한 귀환: 1945-1950 소련의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 검토

- 토 론

- ▶ 심 현용 (군사편찬연구소), 조 세영 (동서대학교)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사회정체성과 언어사용실태

윤인진, 송영호, 김희상 (고려대)

1. 연구 목적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고려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자신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러시아인의 힘이 약화되고 대신 자신들이 무시했던 원주민족들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후 잃었던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되찾고 국민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자민족을 우대하고 타민족들에 대한 실제적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실업, 부정부패, 빈익빈부익부의 사회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들이 일반인들의 삶의 질과 기회를 낮추고 있다. 경제적 문제의 심화는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종족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증폭시켰고, 러시아인, 독일인, 유대인들은 공공연한 차별과 배척을 피해 모국으로 이주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려인 중에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좋은 삶은 거주국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 처지이다.

본 연구는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2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려인의 한민족으로서의 종족정체성과 거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두 종류의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¹⁾ 아울러 이런 사회정체성이 고려말, 한국어, 러시아어, 현지어 사용 실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시, 타슈켄트 주, 사마르칸트), 카자흐스탄(알마티, 크질오르다), 러시아(사할린, 연해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국립국어원의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언어사용실태조사(연구책임자: 한영균 연세대 교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 참여자들은 14세 이상 남녀 고려인으로, 실사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서 면접조사로 실행됐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1,020개로, 지역별로 구분하면 우즈베키스탄 421개(타슈켄트 시 160개, 타슈켄트 주 142개, 사마르칸트 119개), 카자흐스탄 305개(알마티 148개, 크질오르다 157개), 러시아에서 294개(사할린 140개, 연해주 154개)이다.

설문 문항은 총 153개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주제는 인구학적 특성, 언어사용실태(고려말, 한국어, 러시아어, 현지어 실력 및 사용실태),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한국과의 관계 및 한국문화와의 접촉,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유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수준, 언어사용실태,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통계분석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겠다.

1) 'Nation'은 한국어로 '민족' 또는 '종족'으로 번역되는데 독립국가연합에서 민족집단과 종족집단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즈베크인 또는 카자흐인과 같은 집단은 현재 거주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착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집단(national group)으로 부르고 고려인은 이주민이고 고유한 영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종족집단(ethnic group)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본 글에서는 최대한 민족과 종족을 구분하여 사용하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관례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종족 대신 민족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3. 선행연구

1)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와 종족성을 연구한 유가이 일리야(1998)에 따르면 따따르족, 우드무드족, 그루지아족, 우즈베크족 등의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동일한 언어와 문화에서 찾지만 고려인은 자신의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것과 고유한 음식문화에서 찾았다고 했다. 따라서 종족언어를 상실한 고려인의 종족정체성은 상당히 상징적, 정신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대체로 피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한우(1996)는 고려인이 민속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화하고 러시아화된 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화석화된 게마인샤프트적 잔재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했다.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정체성을 연구한 장준희(1999)는 고려인이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지칭할 때 남한의 한국인도 아니고 북한의 조선인도 아니고, 한민족으로서의 혈통을 지니고 있지만 거주국의 문화와 국민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중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려인의 종족정체성은 국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혈통과 정착사회에서의 집단적 경험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인의 종족정체성을 연구한 윤인진(1999)은 고려인이 상당히 강한 수준의 종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고려인이 거주국에서 소수종족으로 구별되고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들었다. 신체적으로 러시아인들과 원주민들과 구별되는 고려인에게 동화는 본인의 의사나 희망여부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구소련 체제와 현재의 독립국가연합 체제에서 개인의 종족성은 여권 및 각종 공문서에 기재되고, 고려인은 교육, 직업, 이동의 자유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렇듯 고려인의 생활세계에서 종족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종족들에 의해서 구별되고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고려인의 종족성은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를 구하고, 직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기준이 되어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까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다인종, 다민족사회에서 타종족들에 의해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구별되고 인식되는 것이 고려인의 종족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 3~4세대에 이르러 현지 주류사회에 언어, 문화, 구조적으로 동화를 했어도 고려인의 종족정체성 수준은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2007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로스토프 주, 볼고그라드 주에서 총 301명의 고려인 청년들(15~35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종족정체성과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한 김혜진(2008)에 따르면 이들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많은 전통문화 요소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들을 한인으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한민족으로 동일시하는 것과 정체성을 갖는 것은 주로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족 내에서 사회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아직까지도 가정 내에서 한식을 먹고 전통 의례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한민족 의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기(2012)는 1991년 구소련 붕괴 전후로 태어난 ‘독립세대’(또는 ‘개혁·개방세대’)들은 그 이전에 출생해서 성장했던 ‘소비에트세대’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2007년에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독립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언어사용실태와 국민정체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려인 독립세대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어인 우즈베크어를 사용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도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고려인들이 여전히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과거 소비에트세대가 소련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려인이라는 종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과 달리 독립세대는 거주국의 차별적인 민족주의 정책과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민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2) 언어 상황

구소련 체제하에서 고려인이 처했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들(예를 들어 강제이주, 수적 열세와 민족 자치주의 부재, 높은 도시 정착률, 빠른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으로 인한 높은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종사자율)은 언어동화를 포함한 러시아 문화로의 동화를 촉진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려인의 언어동화는 다른 소수종족들에 비교해서 더 빠르고 완전하게 진행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재남(1993)은 고려인 중에 단지 5%만이 한국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고 보고했다. 허승철(1996)에 따르면 고려인의 고려말 능력이 시기별로 계속 하락했다고 한다. 고려말로 말할 수 있는 고려인의 비율은 1959년의 79.3%에서 1970년의 68.6%, 1979년의 55.4%, 1989년의 47.2%로 감소했다. 반면 러시아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59년의 20.5%, 1970년의 31.3%, 1979년의 44.4%, 1989년의 49.9%로 계속 증가했다. 이런 수준의 언어교체(language shift) 속도는 다른 종족들에 비교하면 지극히 예외적으로 빨랐다고 한다. 구소련 전체 소수민족집단 성원들 가운데 자신들의 민족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80%를 넘었다(허승철, 1996: 40-65).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1990년대 후반에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언어상황을 조사한 윤인진(1999)의 연구에 따르면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91%가 러시아어를 본인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로 보고했고, 젊은 세대로 옮겨갈수록 언어동화 또는 민족어 상실의 급속하게 진행됐다. 또한 이주 세대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카자흐어나 우즈베크어와 같은 현지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 당시 조사시점에서 응답자 중에서 현지어를 가장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고려인이 구소련 체제에서 러시아어에 숙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배우는데 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에 관한 성동기(2012)의 연구에서도 100명의 응답자 중에서 우즈베크어를 자유롭게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응답자들은 96%에 달했다. 언어상황은 고려인 기성세대에서도 동일해서 100명의 기성세대 응답자 중에서 우즈베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대신 모든 응답자들이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우즈베크어를 구사할 수 없어도 비슷한 나이의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성세대의 48%가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독립세대의 3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우즈베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만큼 배울 의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성세대의 8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독립세대의 58%가 그렇다고 응답해서 오히려 독립세대가 상황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든 세대에 비교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가 취업과 교육을 위해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우즈베크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과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고려인의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그리고 언어사용실태가 독립 이후 2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국가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에는 총 1,020명의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언어사용실태,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됐다. 우선 성별 분포를 보면 조사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대체로 여성들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 분포를 보면 지역별 분포가 큰데 대체로 10~29세가 30%, 30~49세가 20%, 50~69세가 30%, 70세 이상이 18% 정도를 차지했다. 연해주와 사할린의 응답자들이 타 지역의 응답자들에 비교해서 젊은층의 비율이 높았다. 출생 코호트를 살펴보면 1937년 이전 코호트가 전체 응답자의 10.5%, 1937~1990년 코호트가 74.7%, 1991년 이후 코호트가 14.8%를 차지했다. 사마르칸트의 응답자 중에서 1991년 이후 코호트 비율이 25.2%로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교해서 유난히 높았다. 학력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2%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서 매우 높은 학력을 기록했다. 크질오르다의 응답자들은 95.8%가 대졸자로서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교해서 유난히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0.8%가 블루칼라, 26.4%가 화이트칼라, 25.5%가 주부 또는 학생, 37.3%가 연금생활자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 특성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전체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 성별 | | | | | | | |
| 여자 | 62.6 | 61.3 | 66.2 | 63.9 | 69.5 | 62.9 | 64.2 |
| 남자 | 37.4 | 38.7 | 33.8 | 36.1 | 30.5 | 37.1 | 35.8 |
| 사례수 | 302 | 119 | 148 | 158 | 154 | 140 | 1,020 |
| 연령 | | | | | | | |
| 10~29 | 25.8 | 42.9 | 27.0 | 30.6 | 29.4 | 24.3 | 30.5 |
| 30~49 | 17.2 | 16.0 | 20.9 | 22.3 | 19.0 | 25.0 | 19.7 |
| 50~69 | 31.1 | 26.9 | 30.4 | 24.2 | 40.5 | 32.1 | 31.0 |
| 70 이상 | 25.8 | 14.3 | 21.6 | 22.9 | 11.1 | 8.6 | 18.8 |
| 사례수 | 302 | 119 | 148 | 157 | 153 | 140 | 1,020 |
| 출생코호트 | | | | | | | |
| 1937년 이전 | 14.2 | 6.7 | 8.8 | 15.9 | 6.5 | 5.7 | 10.5 |
| 1937~1990년 | 74.8 | 68.1 | 80.4 | 66.9 | 81.2 | 80.7 | 74.7 |
| 1991년 이후 | 12.9 | 25.2 | 10.8 | 17.2 | 12.3 | 13.6 | 14.8 |
| 사례수 | 302 | 119 | 148 | 157 | 154 | 140 | 1,020 |
| 학력 | | | | | | | |
| 초졸 | 7.4 | 1.0 | 1.9 | 0.0 | 2.4 | 4.4 | 4.1 |
| 중졸 | 6.0 | 11.1 | 0.9 | 1.4 | 2.4 | 2.6 | 4.5 |
| 고졸 | 33.5 | 25.3 | 13.1 | 2.8 | 19.8 | 14.9 | 22.2 |
| 대졸 이상 | 53.2 | 62.6 | 84.1 | 95.8 | 75.4 | 78.1 | 69.2 |
| 사례수 | 284 | 99 | 107 | 72 | 126 | 114 | 803 |
| 직업 | | | | | | | |
| 블루칼라 | 6.9 | 7.1 | 6.8 | 9.8 | 23.7 | 13.3 | 10.8 |
| 화이트칼라 | 19.7 | 25.0 | 31.6 | 19.7 | 23.7 | 45.9 | 26.4 |
| 무직(주부, 학생) | 24.2 | 45.5 | 22.6 | 27.9 | 20.9 | 17.0 | 25.5 |
| 무직(연금생활자) | 49.1 | 22.3 | 39.1 | 42.6 | 31.7 | 23.7 | 37.3 |
| 사례수 | 289 | 112 | 133 | 122 | 139 | 135 | 1,020 |

2)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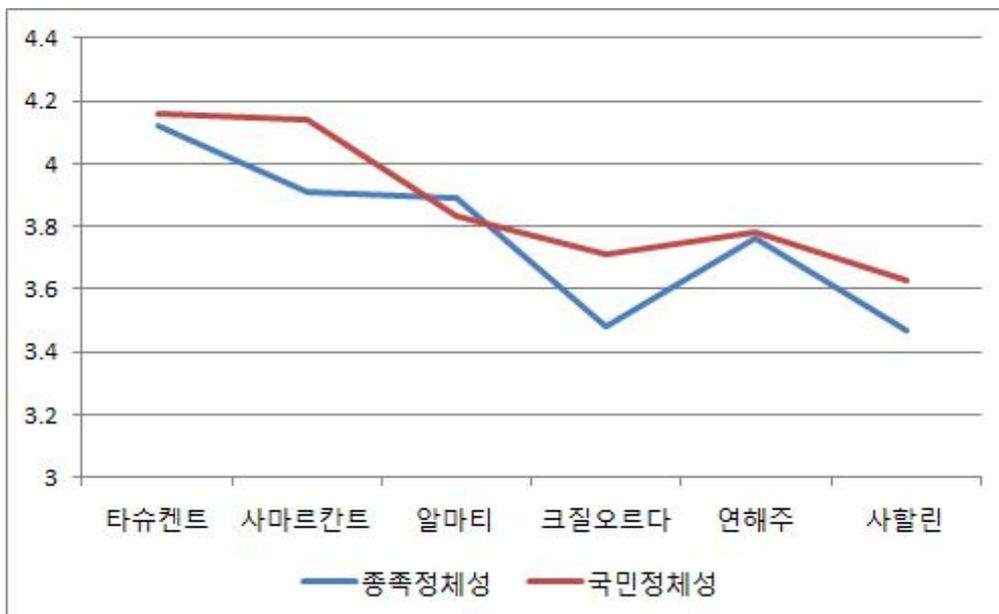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을 활용했다. 종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측정된 총 7개의 다음과 같은 문항들을 사용했다: (1)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2)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4) 나는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5) 나는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7) 나는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정체성은 5점 척도로 측정된 총 7개의 다음과 같은 문항들로 측정했다: (1) 나는 자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2) 자국에는 모든 민족성원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국민정체성과 국민문화가 있다, (3) 나는 자국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4) 나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안다, (5) 나는 자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7)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국어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두 가지 정체성에 관한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대체로 보통에 해당하는 3점보다 높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민정체성이 종족정체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높았고 사할린과 연해주에서 가장 낮았다. 타슈켄트에서는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공히 높았으나 크질오르다에서는 두 정체성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고려인의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수준(단위: 5점 척도)

| 국가 | 지역 | 종족정체성 | 국민정체성 |
|--------|-------|-------|-------|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 4.12 | 4.16 |
| | 사마르칸트 | 3.91 | 4.14 |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3.89 | 3.83 |
| | 크질오르다 | 3.48 | 3.71 |
| 러시아 | 연해주 | 3.76 | 3.78 |
| | 사할린 | 3.47 | 3.63 |
| 전체 | | 3.82 | 3.91 |
| 사례수 | | 988 | 989 |

<그림 1> 지역별 고려인의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수준 (단위: 5점 척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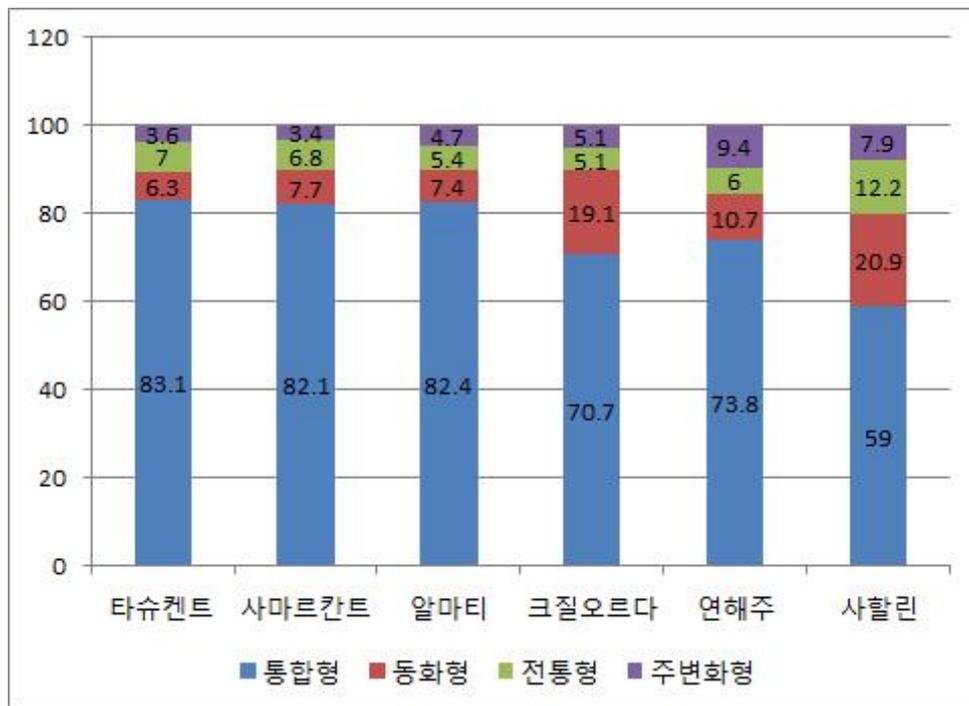
베리의 문화접변 모형을 사용해서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교차하여 네 가지 정체성 유형을 구분

했다. 종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모두 강하면 ‘통합형’, 국민정체성은 강하나 종족정체성은 약하면 ‘동화형’, 국민정체성은 약하나 종족정체성이 강하면 ‘전통형’, 두 가지 정체성이 모두 약하면 ‘주변화형’으로 구분했다. 정체성이 강하고 약하고의 구분은 5점 척도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3점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고려인의 정체성 유형을 구분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통합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동화형이고, 가장 적은 유형이 주변화형이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서 사할린과 크질오르다에서 동화형이 많았다.

<표 3> 지역별 고려인의 정체성 유형(단위: %)

| 국가 | 지역 | 통합형 | 동화형 | 전통형 | 주변화형 |
|--------|-------|------|------|------|------|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 83.1 | 6.3 | 7.0 | 3.6 |
| | 사마르칸트 | 82.1 | 7.7 | 6.8 | 3.4 |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82.4 | 7.4 | 5.4 | 4.7 |
| | 크질오르다 | 70.7 | 19.1 | 5.1 | 5.1 |
| 러시아 | 연해주 | 73.8 | 10.7 | 6.0 | 9.4 |
| | 사할린 | 59.0 | 20.9 | 12.2 | 7.9 |
| 전체 | | 76.3 | 11.3 | 7.0 | 5.4 |
| 사례수 | | 772 | 114 | 71 | 55 |

<그림 2> 지역별 고려인의 정체성 유형(%)



3) 언어 사용 실태

고려인이 모어 또는 제1언어라고 지명한 언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러시아어를 모어라고 응답했다. 고려말(또는 조선말)을 모어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15.4%였고, 고려말과 러시아어 등 2개 국어 이상을 모어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8.4%였다. 지역별 차이도 드러났는데 사할린에서 러시아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말을 모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서보다 높았다.

<표 4> 지역별 고려인의 모어(제1언어) 분포(%)

| 모어(제1언어)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전체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 고려말(조선어) | 18.2 | 20.3 | 15.0 | 16.7 | 10.1 | 8.2 | 15.4 |
| 러시아어 | 70.9 | 74.6 | 73.8 | 76.3 | 71.7 | 83.6 | 74.2 |
| 한국어 | 0.7 | 1.7 | 3.7 | 3.2 | 1.0 | 3.0 | 2.0 |
| 기타(2개국어 이상) | 10.3 | 3.4 | 7.5 | 3.8 | 17.2 | 5.2 | 8.4 |
| 사례수 | 302 | 118 | 107 | 156 | 99 | 134 | 920 |

고려인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구어에서 소개나 인사, 직업이나 취미, 사회적 사건, 연설 또는 전문적 내용을 말할 때 각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어 능력이 4.6~4.8점으로 가장 뛰어났고 그 다음으로 고려말이 보통 수준인 3점 보다 낮았다. 한국어 능력은 고려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거주국의 현지어 능력은 잘 못하는 편인 2점에 머물렀다. 이런 결과를 보면 고려인의 언어 능력은 러시아어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으로 고려말을 잘 못하는 편이고, 현지어는 그 보다 더욱 못 하는 편이다. 한 가지 두드러진 지역별 차이는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한국어 능력 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타슈켄트와 알마티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현지어 능력이 사마르칸트와 크질오르다와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응답자들보다 낮았다. 이런 결과는 대도시에서는 현지어를 모르고 러시아어만 잘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지역별 고려인의 언어 능력(단위: 5점 척도 평균값)

| 언어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고려말 | 2.97 | 2.30 | 2.36 | 1.96 | 2.21 | n.a. |
| 러시아어 | 4.80 | 4.93 | 4.84 | 4.68 | 4.73 | 4.67 |
| 한국어 | 1.94 | 1.55 | 2.07 | 1.42 | 2.15 | 2.14 |
| 현지어 | 2.09 | 2.33 | 2.10 | 2.37 | n.a. | 2.08 |
| 사례수 | 302 | 118 | 147 | 140 | 145 | 140 |

언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질문한 결과 여전히 러시아어를 가장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장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국어가 꼽혔다. 거주국 내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거주국의 현지어를 가장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크질오르다를 제외하고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현지어를 두 번째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역시 크질오르다를 제외하고는 30%를 넘지 않았다. 연해주와 사할린에서는 한국어를 두 번째로 잘 하고 싶은 언어로 선택한 비율이 50~60%에 달했다.

<표 6> 가장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 언어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첫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15.8 | 6.8 | 13.9 | 11.6 | 9.0 | 0.0 |
| 러시아어 | 56.8 | 70.1 | 59.0 | 60.6 | 82.1 | 90.0 |
| 한국어 | 15.8 | 14.5 | 11.1 | 6.5 | 9.0 | 6.4 |
| 현지어 | 11.6 | 8.5 | 16.0 | 21.3 | 0.0 | 3.6 |
| 사례수 | 292 | 117 | 144 | 155 | 145 | 140 |
| 두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22.3 | 22.0 | 19.6 | 17.8 | 35.3 | 0.0 |
| 러시아어 | 22.7 | 22.0 | 30.9 | 27.8 | 10.3 | 5.0 |
| 한국어 | 25.6 | 28.0 | 17.5 | 8.9 | 54.3 | 67.8 |
| 현지어 | 29.4 | 28.0 | 32.0 | 45.6 | 0.0 | 27.3 |
| 사례수 | 238 | 82 | 97 | 90 | 116 | 121 |
| 세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23.1 | 38.5 | 28.8 | 34.5 | 53.1 | 0.0 |
| 러시아어 | 12.2 | 7.7 | 15.3 | 3.4 | 9.9 | 4.9 |
| 한국어 | 36.5 | 27.7 | 25.4 | 31.0 | 37.0 | 30.9 |
| 현지어 | 28.2 | 26.2 | 30.5 | 31.0 | 0.0 | 64.2 |
| 사례수 | 156 | 65 | 59 | 29 | 81 | 81 |

본인의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앞으로 거주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언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놀랍게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조차 현지어보다는 러시아어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어가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모든 지역에서 90%에 가깝거나 넘어섰다. 반면 현지어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나마 현지어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사마르칸트와 크질오르다에서 50%를 넘었고 타슈켄트와 알마티에서는 20% 안팎이었다. 고려말이 앞으로도 자국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많았다. 앞서도 나타났지만 연해주와 사할린에서는 한국어가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들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았다.

<표 7> 앞으로 자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언어(%)

| 언어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첫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10.4 | 2.5 | 4.1 | 5.1 | 4.7 | 0.0 |
| 러시아어 | 88.9 | 97.5 | 92.5 | 94.2 | 95.3 | 92.1 |
| 한국어 | 0.3 | 0.0 | 2.0 | 0.0 | 0.0 | 1.4 |
| 현지어 | 0.3 | 0.0 | 1.4 | 0.6 | 0.0 | 6.4 |
| 사례수 | 297 | 118 | 147 | 156 | 148 | 140 |
| 두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57.4 | 37.3 | 50.0 | 39.2 | 60.6 | 0.0 |
| 러시아어 | 12.1 | 2.7 | 4.4 | 5.1 | 2.8 | 7.1 |
| 한국어 | 13.7 | 14.7 | 20.0 | 8.9 | 35.8 | 35.8 |
| 현지어 | 16.8 | 45.3 | 25.6 | 46.8 | 0.9 | 54.5 |
| 사례수 | 256 | 75 | 90 | 79 | 109 | 112 |
| 세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25.6 | 50.0 | 28.3 | 28.6 | 28.2 | 0.0 |
| 러시아어 | 0.0 | 0.0 | 0.0 | 0.0 | 5.6 | 3.9 |
| 한국어 | 27.9 | 11.5 | 30.0 | 33.3 | 66.2 | 56.6 |
| 현지어 | 46.5 | 38.5 | 41.7 | 38.1 | 0.0 | 39.5 |
| 사례수 | 172 | 52 | 60 | 21 | 71 | 76 |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타 지역의 고려인들에 비교해서 한국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이들이 한국과의 교류 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보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마르칸트와 크질오르다와 같은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8> 지역별 한국 방문 경험(%)

|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있음 | 19.1 | 9.0 | 22.3 | 3.0 | 27.4 | 30.8 |
| 없음 | 80.9 | 91.0 | 77.7 | 97.0 | 72.6 | 69.2 |
| 사례수 | 246 | 89 | 103 | 132 | 73 | 26 |

고려인 사회에서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언어는 역시 러시아어였으나 고려말과 한국어가 앞으로 고려인 사회에서 자주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고려말보다 한국어가 더욱 자주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더욱 높았다. 이러한 생각은 고려말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취업 등과 같은 생활기회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앞으로 고려인 사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언어(%)

| 언어 | 우즈베키스탄 | | 카자흐스탄 | | 러시아 | |
|---------|--------|-------|-------|-------|------|------|
| |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 알마티 | 크질오르다 | 연해주 | 사할린 |
| 첫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21.2 | 13.8 | 13.3 | 17.4 | 8.2 | 0.0 |
| 러시아어 | 38.7 | 56.0 | 49.0 | 45.2 | 71.4 | 82.7 |
| 한국어 | 29.0 | 23.3 | 12.6 | 7.7 | 20.4 | 12.9 |
| 현지어 | 11.1 | 6.9 | 25.2 | 29.7 | 0.0 | 4.3 |
| 사례수 | 297 | 116 | 143 | 155 | 147 | 139 |
| 두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19.4 | 30.9 | 16.3 | 8.2 | 35.1 | 0.0 |
| 러시아어 | 28.0 | 21.0 | 36.0 | 26.0 | 14.4 | 11.1 |
| 한국어 | 29.9 | 24.7 | 17.4 | 11.0 | 49.5 | 60.7 |
| 현지어 | 22.7 | 23.5 | 30.2 | 54.8 | 0.9 | 28.2 |
| 사례수 | 211 | 81 | 86 | 73 | 111 | 117 |
| 세 번째 순위 | | | | | | |
| 고려말 | 16.7 | 26.7 | 35.2 | 26.3 | 55.8 | 0.0 |
| 러시아어 | 20.1 | 31.7 | 14.8 | 36.8 | 13.0 | 9.1 |
| 한국어 | 34.0 | 16.7 | 38.9 | 31.6 | 29.9 | 32.5 |
| 현지어 | 29.2 | 25.0 | 11.1 | 5.3 | 1.3 | 58.4 |
| 사례수 | 144 | 60 | 54 | 19 | 77 | 77 |

앞서 구분했던 정체성 유형과 언어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정체성 유형에 따라 어떤 언어가 모어로 사용되는가를 조사했다. 결과는 모든 정체성 유형에서 러시아어가 모어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려말이었다. 특히 주변화형에서 러시아어가 모어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화형이었고, 통합형에서 가장 낮았다. 고려말이 모어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통합형이었고 주변화형에서 가장 낮았다.

<표 10> 정체성 유형과 모어(제1언어) 간의 상관관계(%)

| | 통합형 | 동화형 | 전통형 | 주변화형 |
|-------------|------|------|------|------|
| 고려말(조선어) | 17.3 | 7.6 | 15.4 | 6.1 |
| 러시아어 | 71.7 | 86.7 | 76.9 | 87.8 |
| 한국어 | 2.0 | 1.0 | 3.1 | 2.0 |
| 기타(2개국어 이상) | 9.1 | 4.8 | 4.6 | 4.1 |
| 사례수 | 695 | 105 | 65 | 49 |

정체성 유형에 따라 개별 언어 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고려말 능력은 통합형에서 가장 높았고 주변화형에서 가장 낮았다. 러시아어 능력은 통합형에서 가장 높았고 전통형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어 능력은 전통형에서 가장 높았고 동화형에서 가장 낮았다. 현지어 능력은 통합형에서 가장 높았고 전통형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거주국의 국민과 한민족의 종족으로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한 통합형에서 고려말, 러시아어, 현지어 능력이 높았고 거주국의 국민정체성이 약하고 한민족의 종족정체성이 강한 전통형에서 러시아어, 현지어 능력이 낮았다.

<표 11> 정체성 유형과 개별 언어 능력(단위: 5점 척도 평균값)

| | 통합형 | 동화형 | 전통형 | 주변화형 |
|----------|------|------|------|------|
| 고려말(조선어) | 2.64 | 1.81 | 1.97 | 1.78 |
| 러시아어 | 4.79 | 4.75 | 4.67 | 4.76 |
| 한국어 | 1.96 | 1.46 | 2.07 | 1.67 |
| 현지어 | 2.23 | 2.14 | 1.93 | 1.96 |

5. 요약 및 결론

구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이 설립된 이후 2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려인들은 새로운 민족국가가가 설립되고 민족주의의 파고가 높아져가는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대다수의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소수에 불과했다. 즉, 다수의 고려인들은 예전 방식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 굳이 자신들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2012: 200)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우즈베크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고려인들은 우즈베크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고 한다. 만일 고려인들이 계속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주류사회문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탈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구소련 시기에는 고려인들이 높은 학력을 소유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개혁개방 이후 대학 교육과 전문직을 포기하고 개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선택이 장기적으로 고려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긴밀한 정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젊은 고려인 세대에서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이 구소련 시기에 누렸던 중간계층으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국의 현지어를 습득하고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소비에트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거주국의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게는 이런 전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재남. 1993. 『독립국가연합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김혜진. 2008.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모스크바 및 남부 러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3(4): 279-298.
- 성동기. 2012.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의 정체성 문제와 대응방안 고찰: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21 : 191-219.
- 유가이 일리야 그리고리에비치. 1998. “중앙아시아 한인의 민족적 창조성.” 『재외한인연구』 7: 37-56.
- 윤인진. 1999. “독립국가연합 한인의 민족관계에 관한 의식.” 『재외한인연구』 8: 111-143.
- 장준희. 1999. “카자흐스탄 고려사람의 민족정체성 변화과정연구.” 『재외한인연구』 8: 53-85.
- 최한우. 1996.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고려인 정체성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65-239.

허승철. 1996.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6: 40-65.